

투데이 칼럼

북한 이미지 정치 효과

북한 매체에 등장하는 장면 하나하나에는 당국의 선전 메시지가 담겨있는 만큼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김정

은 위원장 부상화를 위한 이미지 정치 아니라는 분석이 나오기 때문이다. 지난 2월 1일 조선중앙TV가 방영

한 기록영화는 지난해 김 위원장의 활동을 차적으로 선전했다. 가장 눈길을 끈 모습은 영화 마지막에 등장

했다. 김 위원장이 백마를 타고 숲속을 걸주었다. 심지어 말의 고삐를 한 손으로 잡고

고 전속력으로 달리는 모습이 공개된 것이다. 부인 리설주 여사와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등 핵심

측근들과 함께 말을 타고 달리는 장면도 보여졌다. 별도의 설명 없이 2분가량 방영된

북한 최고지도자의 승마 장면이었다. 북한 주민이라면 누구나 이 장면의

메시지를 읽을 수 있다. 백마는 북한에서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 북한은 김일성 주석이 항일투쟁

당시 백마를 타고 전장을 누었다고 선전하고 있다. 바로 그 모습을 이상적인

지도자상으로 삼고 있는 것이다. 김정은 위원장도 김일성 주석의 이미지를 차용해 스스로를 이상화하고

승계 정당성을 강조해왔다. 지지기반이 약했던 집권 첫해에는



정복구
국회의원

말을 타고 등장하는 모습이 연출됐다. 하노이 북미회담이 결렬돼 내부

분위기가 침체됐던 2019년엔 백마를 타고 눈 쌓인 백두산을 달리며 내부

결속을 강조했다. 이번에 백마를 타고 걸주하는 김 위원장의 모습 역시 경제난 속 내부

민심을 다잡으려는 이미지 정치의 일환이라는 분석이다. 북한의 이미지 정치

는 백마에서 그치지 않았다. 지난 2월 1일 평양 단수대예술극장에서 열린 설

명절 경축 공연장에 들어서자 김정은 위원장과 리설주 여사 뒤로

나이가 지긋해 보이는 한 여성이 지나갔다. 김 위원장의 고모이자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여동생 김경희였다. 2013년 남편 장성택 처형 이후

모습을 감춰던 김경희는 2020년 설 기념 공연을 통해 6년 만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후 또다시 두르불출하다 올해 첫 공개 활동에 나선 것이다. 그런데 리설주 여사의 달라진 의

상은 김 위원장의 격의 없고 친근한 이미지를 부각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다. 2019년 12월 김정은 위원장이 백두산에 올랐을 때

도 리설주 여사는 김 위원장의 옆자리를 지키며 화제가 됐다. 두 사람은

함께 리명수 폭포를 관광하고, 모닥불을 피웠다. 북한 매체는 이런

내외의 모습을 김일성 주석 부부 이미지와 연결시켰다. 일각에선

북한 당국이 김 위원장 부상화를 극대화하기 위해 리설주 여사에게

김정숙의 이미지를 투영시키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북한은

대북제재 장기화와 코로나 19로 인한 국경봉쇄로 극심한 경제난을 겪고

있다. 여기에 잇따른 미사일 시험발사로 국제사회의 압박이 더 커지는

상황에서 북한은 지도자의 이미지 정치

를 통해 강력한 내부 결속을 시도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김정은

위원장의 부상화가 북한의 선전처럼 실질적인 효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특히 시장경제에 익숙한 장마당 세대의 경우 체제

결속력이 갈수록 떨어간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김정은 위원장은 백마와

고모 김경희, 아내 리설주 여사까지 앞세우고 있다. 북한이 외부 세계와

답을 쌓은 채 자력갱생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내부 결속을 위한 이미지

정치는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독자제언

어린이 안전이 최우선 되어야

경찰에서는 개학기를 맞아 어린이 보호구역에 '사람이 먼저'인 교통문화를

만들어 가는 핵심구역(Care-Zone)으로 설정하여 강력한 교통안전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개학기를 맞아 어린이 통학로와

교통수단인 스쿨존 과 어린이 통학 버스에 대한 중점관리로 어린이 교통

안전 확보와 관계기관, 협력단체와의 적극적인 협업을 통한 어린이(학부)

안전교육·홍보 및 단속강화로 어린이 안전 위협행위 근절로 어린이 교통

사고 감소에 목적이 있다. 지난해 어린이 보호구역내 어린이 교통

사고는 총 567건으로 사망자 6명, 부상자 589명의 피해가 발생했다.

어린이 보호구역내에서 어린이 교통 사고 2건이상 또는 사망사고가 발생

한 곳은 전국 17개 시도, 37개 시군, 42개 지역이 이른다. 보행중 사고가 476

건(84%)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는 주로 방과후

귀가하거나 학원으로 이동하는 시간대인 오후 2~6시에 304건(54%)이

몰렸다. 전북의 경우 최근 3년 평균 어린이 교통사고는

평균 307건이 발생하고, 그 중 스쿨존 사고는 14.3건이

발생하였으며, 21년은 20건 발생하여 전년 대비 10건이

증가하였다. 이에 경찰에서는 경찰서별 맞춤형

교통안전 대책 시행과 어린이 안전띠 착용 교육홍보

및 단속강화, 찾아가는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내실화 그리고 어린이 안전중심 캠페인 추진, 어린이

안전을 위협하는 위반행위에 대하여 집중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움직이는 빨간 신호등'인 어린이에

대하여 '내 말, 내 아들'이라는 신념으로 어린이 사고예방을

위해 안전운전을 생활화해야 하겠다. 전권수무주경찰서

교통관리계장 김경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러시아 공습으로 불타는 키이우 물류센터



지난 3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서 한 우크라이나 군인이 러시아의 공습으로 불타는 물류센터 앞을 지나고 있다.

사설

전북도 노인 일자리 사업 확대

2022년 올해 전북도의 노인 일자리 사업이 지난해에 비해 늘

어날 전망이다. 전북도는 노인들의 사회 활동 기회를 제공하

기 위해 올해 6만1542명을 상대로 일자리 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지난해보다 300억원이 증액된 2840억 원을 투입

한다. 노인 일자리 사업은 공공형과 사회 서비스형, 민간형 등

3가지 유형으로 운영된다. 공공형은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

자와 취약계층 등 5만3074명이 대상이다. 참여자는 월 30시간을

일하고 27만 원의 활동비를 받는다. 6817명을 상대로 추진하는

사회 서비스형은 65세 이상 은퇴 노인의 경력을 살린 공공서비스

제공 사업이다. 월 60시간을 일하면 주휴수당

을 포함해 7만 원을 받게 된다. 민간형은 60세 이상 351명

을 상대로 이뤄진다. 근로계약에 따라 임금을 받는다. 전북도는

2018년 3만1035명을 상대로 노인 일자리 사업을 추

진한 데 이어 2019년 4만3876명, 2020년 5만7807명, 2021년

6만 1797명 등 지속적으로 대상을 늘리고 있다. 보건복지부

주관 노인 일자리 사업 최우수 기관에 3년 연속 선정됐다.

근로 의욕을 가진 건강한 신체에 노인이 급증하고 있다.

노력과 의욕이 충분하지만 은퇴 후 30~40년

기간을 무직 상태로 보내야 한다. 노인들이 빈곤층으로

전락할 수 있는 위험에서 벗어나는 일이 중요하다.

노인 인력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민간 참여를 유도

해야 한다. 은퇴 전후 준비 및 노인 생애 교육 등을 통해

일자리 창출하는 일이 시급하다. 노인 일자리 사업의

운영 주체인 정부, 지방 자치 단체, 노인 인력 운영 센터,

민간사업 수행 기관이 적극 나서야 할 때이다. 노인들이

일을 통해 삶의 활력을 찾고 소득도 올릴 수 있어야

진짜 선진국이다.

중대재해 처벌 문제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두고 논란이 많다. 이

법은 2021년 1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1월 26일

제정되었다. 1년이 경과한 시점인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 사고, 태안화력발전소

사고 등으로 일명 김용균법이라 불리는 산업안전

전보건법 전부 개정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산업재해에

대한 처벌이 지나치게 낮아서 안전한 작업 환경 구축이

이뤄지지 않아 산업재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중대재해

처벌법이 시행된 지 13일 만에 건설 현장에서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경기 성남시 판교의 신축공사

현장에서 승강기를 설치하던 하도급 업체 노동자 2명

이 추락해 사망했다. 시공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위

반 혐의를 피할 수 없게 됐다. 하지만

정작 책임을 져야 할 주체들은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지적이 많다. 지난해 중대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576곳 중 약 60%(339곳)

가 건설업 사업장이다.

다. 중대재해법은 인명 피해를 발생

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법

정의 등 처벌을 규정 한 법이다. 중대

산업재해를 일으킨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산업재

해 중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등

이 중대 산업재해에 해당한다. 이번 사고

는 지난해 27일 중대재해법이 시행되고

난 후 두 번째 적용 사례로, 건설업에서는

처음이다. 승강기 공사 현장에서 매년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다. △2017년 5

명 △2018년 7명 △2019년 8명 △2020

년 6명 △2021년(1~9월 기준) 3명이 추

락해 사망했다. 사고가 잦은 건설업 특

성상 사업주 처벌을 피하기 위해 은근

대신 전문 경영인을 앞세운 것이 아니

라는 지적이 많다. 지난해 중대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576곳 중 약 60%(339

곳)가 건설업 사업장이다.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

